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개최 '맞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 읽는 도시인 전주시가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행사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29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 시장과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 1일부터 3일간 경기전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 개최와 전 국민의 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행사 기획 및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지원 △행사 운영조직의 구성 및 후원 등 대외 협력 창출 △출판·독서·도서관·교육계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여 유도 △지역주민 및 법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적극 실행 △행사 관련 각종 지원 및 기타 상호 협력 등이다.

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된 만큼, 대한민국 대표 독서도시인 전주시민들의 독서 활성화와 출판문화도 한 단계



전주시는 29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 시장과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 1일부터 3일간 경기전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책 읽기 문화 확산·전자출판산업 활성화 등 협력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에서는 책도 맛있다 : 음미하라, 맛있는 책!'을 주제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

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국 출판·독서·도서관 300여개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종합적인 예술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수돗물 수질기준 '적합'

법적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수질검사 실시 결과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건 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매일 광역상수도 생산·공급하는 정수장 1개소와 노후지역 수도꼭지 13개소, 급수과정별 모니 터링 12개소, 일반 수도꼭지 80개소, 기타 수질검사 90개소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검사대상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가 국내 법적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수질

수질검사에서 모두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수질검사 신청을 하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기한 내에 무료로 수질을 검사와 결과를 통보 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 20세대의 수돗물 수질을 검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수시설 5만톤 이상 정수장에 대해서는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인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등 법적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97개 항목을 검사하고, 매일 전주시 홈페이지와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성적표를 공표하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주시 수돗물은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이지만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수돗물의 직접 응용률은 10% 이하로 낮은 편"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검찰, 우석대 최모 교수 연구실 압수수색

문재인 지지모임 학생 동원 의혹에... 사법처리 여부 추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의 지지모임 행사에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주지검은 29일 오전 최모 교수의 연구실과 학과 사무실, 태권도 특성화 사업단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포럼 출범식에 소속 대학생들을 동원하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태권도학과 학과장인 최 교수 등 전·현직 관계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지난달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의혹에 대해 조사해 왔다.

최씨 등 4명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7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505만7000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시 주요도로에 자전거 전용 횡단도 설치

전주시가 자동차에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생활교통 환경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전주시 주요도로에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설치된다.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를 위한 횡

단보도와는 구분된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3억 4000여 만원을 투입해 송전중앙로와, 팔달로, 백제대

로, 장승배기로, 유연로 등 전주시 주요도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로를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초부터 완산·덕진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해왔으며, 현재 자전거 횡단도 및 신호등 설치, 노면표시, 턱 낮추기, 표지판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했다.

/김민근 기자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삼곤 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8,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2시 58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던 중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언을 퍼붓고 지갑으로 3차례 눈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김씨가 말을 함부로 하며 잠을 깨우고 불친절하게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실무분과위원회 간담회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살예방과 낙상예방, 교통안전분야 관계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실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손상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시는 오는 연말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제안전도시 전주 만들기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보고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자살예방과 낙상예방, 교통안전, 방범·폭력예방, 학교·어린이안전, 재해·재난예방, 손상감시 체계의 7개 분야 85명으로 구성된 전

주시 안전도시 실무분과위원회는 지난해 31개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해온 교통과 자살, 재난, 범죄, 학교어린이 안전 6개 분야 9개 안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 등 지역사회의 안전 진단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안전 증진방안 및 손상 예방전략 등을 마련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안전 증진사업을 체계화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제안전도시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WHO 지역사회 안전증진협력센터가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된 도시는 자살과 교통사고, 낙상, 폭력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